소견서

나무 봉 승.

봉밥골에 진료하시며 동고사의 보존대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상벌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경북지역과 경남지역의 아름답지 못한 일로 인하여 상벌위원님들께서 수개월에 걸친 회의와 방문을 통하여 진위를 밝혀주신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범하였으면 당연히 벌에 의거 적절한 징계가 내부내로 강행되어야 하는, 상벌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나. 징계 당사자들이 깊은 참회를 하고있어 (참회문 첨부), 또한 동고사의 대화합을 위해 관용의 지혜로 일관한 사람이라 사료되어 상벌위원님들의 지혜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자들이 깊이 참회하고 있으니 상벌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상벌위원 여러분께 부처님 가피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9. 11. 20

동고사 신장 회장 박 창 덕 합장.